

가슴에 저며오는 민족의 아픔과 그 되새김

김원일 지음 《불의 제전》(전7권)을 읽고

진덕규

이화여대 교수 · 정치외교학

한국전쟁에 대한 소설을 읽을 때마다 갖게 되는 몇가지 느낌이 있다. 소설은 소설이고 한국전쟁은 전쟁으로 그냥 남아 있다는 생각이다. 소설에서 그려놓은 이야기들이 아무리 사실적이라 해도 결국 소설은 소설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을 그려놓은 소설들 대부분은 결국 독자에게 어느 한편을 편들게 하는 선택의 강요에 직면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 사이의 싸움이며 그 싸움이 가져다 준 전쟁의 깊은 상처가 우리들 마음을 아직도 싸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한국전쟁 소설에서는 지난날에 대한 허무함과 그 전쟁의 무의미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어릴 때 각인된 전쟁의 상처

물론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이고 존재하는 현실은 과거가 되어 손닿지 않는 저 먼곳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설사 그것을 역사로 기록한다 해도 그 존재성을 얼마나 정확히 그려낼 수 있을지도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에 잠기면서도 나는 열심히 우리 현대사를 그려놓은 소설들을 기를 쓰고 다 읽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소설이라면 한층 더 그렇다. 왜냐하면 그 소설 속에는 어릴 때 각인된 전쟁의 상처가 가슴 맨 밑바닥에 가느다란 앙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릇 전쟁을 그린 소설이 그렇듯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반전 또는 염전 사상에 바탕한 인간주의적 평화의지를 뜨겁게 달구어 내게 된다. 전쟁은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파괴자라 해도 그만이다. 그것이 품고 있는 살기와 광기는 그 어떤 논리나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쟁은 일어나고 치러지며, 전쟁의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신들린 존재로 변모된다.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상대방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 전쟁이 갖고 있는 이 음험함과 광기, 그리고 그 속에 이름없이 사라져가는 수많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따사로움을 한편의 소설이라도 되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전쟁소설에 것처럼 탐닉하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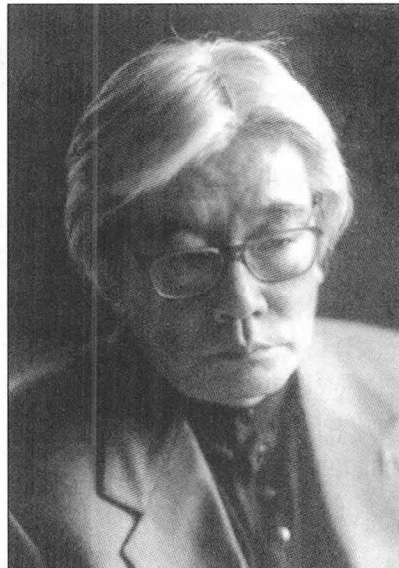
김원일의 《불의 제전》을 읽을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는 한 작가에 걸고 있는 독자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김원일의 작품을 좋아하고 그 작품을 가까이하는 독자로서 자처해왔기에 《불의 제전》 완간을 알게 되자 즉시 서점으로 달려가 몽땅 구입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출판저널》에서 독후감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했을 때는 이미 4권째를 읽고 난 뒤였다. 그러나 곧 후회가 뒤따랐다. 독후감을 쓰기 위해 읽은 소설, 그때부터 소설 읽는 재미가 하나의 숙제로 자리잡게 되었으니 말이다. 한번 읽고 다시 촘촘히 생각해 하는 그러한 방식의 소설 읽기를 난생 처음 해본 셈이 되었다.

어쨌거나 나는 김원일의 이 소설에서 나의 유년기, 그러니까 《불의 제전》에 나오는 남로당계 거물 인사 조민세의 둘째아들 갑해 또래로, 이 소설의 무대가 된 경상남도 진영처럼 남도의 어느 촌락에 살았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심정적 일체감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 해방되었을 때 국민학교 저학년이었으며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소설의 무대가 된 진영의 그 소란스러움을 소설에서의 감해처럼 어린 몸으로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었다.

내 옆에 있던 현상성

밤이면 먼 산에 올려진 봉화불을 볼 수 있었으며, 마을에 내려온 야산대의 그 살기어린 눈초리며 그들이 배워준 노래도 낮에는 깡그리 잊어야 한다는 것쯤은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치 채 수 있었던 나이였다. 경찰이 것처럼 무섭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읍내 경찰서 앞에만 가면 그 안에서 들리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는 지금도 경찰이 나에게 무서운 존재로 남아 있게 만든 원인이 됐다. 정말로 그 시절 경찰은 참 무서웠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렇게 무서웠던 경찰의 최고 우두머리가 조병옥이었고 장택상이었다는 사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민주투사로 그 이름을 익혀야 했던 그 조병옥과는 혼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원일씨.

그 시절에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일 자체가 참 고통스러웠다. 문자 그대로 초근목피로 연명했으며 아사자가 속출했다. 그런데도 양조장집이며 정미소집, 그리고 근동의 부자집 살림살이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는 지금도 어느해 봄 근동의 어느 부자집 점심상에서 본 하얀 쌀밥의 그 잔영을 지울 수가 없다. 봄이면 다들 우리들처럼 그렇게 굶주리는 줄만 알았는데, 지주라는 말이며 소작인, 토지개혁이라는 말까지 알게 된 것은 어른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것이 주요한 주제로 바뀌고 난 뒤였다. 마을 사람들은 농지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뒤끓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불의 제전》은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을 되살려 주었다. 그것이 결코 잊혀질 수도 잊혀져서도 안된다는 사실만을 한번 더 일깨워주었기에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 옆의 현장성을 근 50년의 시간의 벽을 넘어 다시 내게로 다가서게 했다.

박도선으로 투사되는 어느 청년의 회상

《불의 제전》은 경남 김해의 진영을 무대로 1950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그리고 있다. 소설에는 딱히 주인공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느 면에서는 진영 사람 모두가 주인공이라 해도 좋다. 그래도 구태여 주인공을 고르라면 다음 몇 집안을 적을 수밖에 없다. 심천수를 중심으로 하는 심씨 집안, 주점 감나무집의 안시원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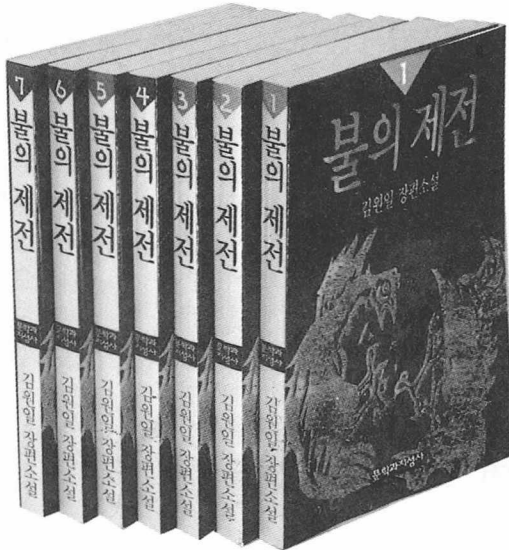
가, 과수원과 중학교의 교장인 서용하와 그 조카들, 농민운동가 박도선과 그의 누이 박귀란, 중소지주 배종두 일가, 그리고 남로당의 주요 간부 조민세 일가로 되어 있다. 어느 고장에서나 다 그렇듯이 진영 인근에서도 이 소설에서는 잘사는 집안과 가난한 집안, 그리고 그 시절의 우파와 좌파, 중간파로 나누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소설의 전개는 원죄의식이라 해도 좋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회의적인 삶에서 문제의식을 끌어내고 있다. 경성대학 정구선수였으며 한때는 좌파운동에 참여했지만 일제 학병에 끌려가 팔 하나를 잃고 귀향한 심천수의 좌절, 그의 어릴 때 스승 안시원의 숨겨진 과거로부터의 의식적인 탈출, 그리고 좌파 활동의 맹동성에서 벗어나 단 한끼라도 먹을 수 있는 농민들의 정상성을 이룩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몰고가는 박도선의 열정 등이 일종의 이념적 중간파로서나 사려깊은 일상성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마침내 좌우 양편의 행동가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살벌한 상황 속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양분적 대립과정으로 말려들고 만다.

좌우파의 행동가로는 먼저 좌파에서는 악덕지주를 살해한 남로당 행동대원 차구열, 젊은 시절부터 좌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내내 파르티잔의 지도자인 배종두, 이들의 상급자인 조민세가 한 덩어리로 얽혀진다. 그 반대편 우파에는 지주이자 산업자본가로 전신한 심천수의 아버지인 농지위원장 심동호를 비롯하여 지서주임 강명길, 차석 노기태 등으로 또 다른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들 좌우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사실상 그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들은 단지 그 어느 한 편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조우하고 있을 뿐이다.

요즘은 식으로 말하면 이념적 지평 위에서 이 소설의 전개는 좌우파의 예각점에 놓여 있는 좌파의 차구열과 우파의 임철병 사이의 대조적인 활동에서부터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차구열의 살인, 그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폭압성, 파르티잔의 보급활동, 다시 경찰의 보복적 진압이 되풀이되면서 무대는 그해 여름의 서울로 넘어가게 된다. 이 소설

《불의 제전》은 잊어버리고 싶었던 어린시절을 되살려 주었다. 이 소설의 무대인 경남 진영처럼 남도의 어느 촌락에서 살았던 나는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심정적 일체감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철저한 고증으로 작중 인물의 삶을 차분하게 이끌어내고 있는 이 소설의 작가는 참 대단하다.



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 적어도 나는 이 소설 전7권 중에서 제일 신나게 그리고 가치롭게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었다. — 그해 여름의 한국전쟁 개전하의 인공치하 서울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의 속성 절실하게 드러내

서울로 올라온 심찬수, 남로당 서울시당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조민세와 그의 아내와 아들 갑해, 여관업에 종사하는 서성욱 일가,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세상을 만났으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배중두·박귀란 부부의 삶의 한계 같은 것을 짚어보면서 인공치하에서의 서울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착할 수 없는 삶의 고달픔을 벗기 위해 진영으로 되돌아와야 했던 심찬수와 서성욱 일가의 남행기는 한국전쟁의 속성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남행길에서 외팔이 지식인 심찬수가 본 것은 맹목적으로 저질러지는 살육이었으며, 알 수 없는 분노감에 충일된 폭력의 일상성과 그 관습화된 전쟁에의 지겨움이었다. 그는 배중두·박귀란이 낳은 어린아이를 그 할아버지 배현주에게 안겨주기 위해 남행길에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의 묘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비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들에 이어 진영을 찾아온 것은 공산당 간부 조민세의 부름으로 서울로 간 갑해의

일가로, 그들은 9.28 서울 수복 이후의 우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진영으로 되돌아온다. 이들을 맞은 것은 진영의 그 정겨움이 아니라 경찰지서의 또다른 폭압성이었다. 심찬수도 갑해도 갑해의 어머니 봉주댁도, 심지어 감나무집 안시원도 모두 경찰지서에서 요시찰 인물로 시달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진영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농민운동가 박도선이 군대에 입대한 뒤 그가 일구었던 공동체적 농장에서 고아들을 돌보아야 했으며, 그곳에 주둔한 미군의 부녀자 희롱사태로 농민과 미군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으며 마침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 심찬수가 앞장서는 상황으로 달려가게 된다. 진영은 달라지고 있었다. 차구열의 처아치골택이 재혼하고 심찬수는 결국 서성욱과 결혼하며 박도선은 전장터에서 실명하고 안시원은 병석에 눕게 된다. 이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면 이처럼 새로운 진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변혁의 진통과 새로움의 움이 돌아나는, 서로 다른 두가지 양상을 엿보게 되어 그려내고 있다.

나는 이 소설 마지막 7권을 다 읽으면서 내 스스로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을 이 소설로부터 살려낼 수 있었다. 소설에서의 박도선을 닮은 한 젊은이가 그 시절 내 고향에도 있었다. 낮에는 공동농장을 한다면서 뒷산을 개간했고 저녁이면 야학을 열었던 그 젊은이는 소설에서의 박도선 바로 그였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박도선이 국군에

입대하여 실명하는 아픔을 경험했다면 내 고향의 그 젊은이는 소설에서 묘사된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가 되어 근처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그때 나이 24살, 바로 나의 중형이었다. 지금은 어느 구천의 원혼으로 떠돌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 박도선의 슬픔에 겹쳐 더 큰 아픔으로 가슴을 채우게 된다.

한 시대의 조락을 보는 비감

한국전쟁에 대한 소설들, 대작의 장편도 있었고 단편도 있었지만 그것에 독자로서 대면할 때면 민족의 차원에서나 형제라는 의미에서 그 황당함 같은 것이 우울함으로 다가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전쟁이 한낱 강대국의 패권장악을 위한 대리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잘난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는 또다른 너울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전쟁은 우리를 위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미국과 소련을 위한 대리전에 불과했고 그 잘난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었음을 생각하면 침통함을 넘어 분노감을 느끼게 된다.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바쳐야 했는가. 그러한 전쟁을 이 소설에서는 담담하고도 차분하게 그리면서도 실제 마음 속에는 그 어떤 꿈틀거림으로 생동치게 됨을 느끼게 한다.

결국 한국전쟁은 이 소설 마지막 제7권에서 그려놓은 닭싸움과 진배없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두마리의 샤모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상대방을 물고뜯는 그 현장에서 구경꾼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야말로 한국전쟁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저 닭이 성제(형제)간인 줄 압니까? 일년 터울이지마는 마산 죽보 있는 종계한테 받아낸 태생인기라예.”/“장지홍이 옆에 선 노인에게 말한다.”/“그라모 성제간에 찜질하네?”/“하모예.”/“참말로 정 떨어지구만. — 성제간에끼리 저래 피칠갑해가꼬 달겨드이. 죽보고 나발이고 저놈들도 역시 짐승새끼인게 할 수 없지러.”/“사람도 그렇지 머예. — 저놈들도 주인이 다르니까 그저 주인 시키는 대로 충성심을 보이겠다고 저래 죽도록 피를 뿌리지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죽기를 한사코 싸움질했던 전쟁 그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나는 《불의 제전》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문학적 또는 그것과 연관된 논의 같은 것은 할 자격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다. 단지 독자로서, 그것도 불행히 이 시기를 공부한답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이 소설을 읽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면 너무 비소설적 독후감일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이 소설의 작가는 참 대단하다. 이 소설의 시대와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이야말로 전문적인 이해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발과 땀 그리고 열정으로 이룩한 결과이기에 명색 그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다짐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렇고 그런 작가가 아니다. 역사의 사실을 실증성에 바탕을 둔 차분한 객관성으로 작중인물 모두의 위치에 서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기 때문이다. 지서주임 강명길은 강명길대로 안시원은 안시원대로 끝년이는 끝년이대로 모두 그 나름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그려놓았다.

그만큼 편견 없는 서술로 일관되어 있다. 독자로 하여금 설익은 주장이나 선택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모두를 다 가슴에 안게 하고 끝내는 가난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소설로 전개되고 있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몇차례 가슴에 저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안시원의 마지막 장면을 대할 때는 한 시대의 조락을 바라보는 비감에 잠기게 되었고 시의 세계로 눈뜨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갑해에게서 숙명처럼 얽혀 있는 현실의 초극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나마 서성욱을 아내로 맞아 새롭게 안시원의 자리와 박도선의 자리를 메워 가야 할 심찬수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것도, 그들이 단순히 진영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민족 전체일 수도 있다는 한가지 사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

문학과지성사/A5신/각 320면 내외/각 7000원